環境造形學科의 당면과제

金 昌 熙
(서울市立大 産業美術學科)

1. 응용미술학과의 변화

미술대학 입시의 공통 관리에서는 채점 교수들의 전공을 동양화, 서양화, 조소, 응용 미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응용미술학과는 국내 대학들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여러 대학들이 응용미술학과를 개설했었으나 학문의 세분화 경향과 전공 기능의 전문화로 그 몫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응용미술학과는 그 타당도가 약화되어 개설된 지 10여 년을 전후하여 폐지되고 산업미술학과 또는 산업디자인학과로 명칭이 바뀌어 왔다. 현재로서는 산업미술학과의 성격도 퇴색되고 있으며 산업 디자인의 의미를 더욱 세분화한 시각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가 좀더 전문성에 접근하는 타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학과의 속도감 있는 명칭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기능을 발휘하는 커리큘럼의 변화에서는 아직도 외국 유명 대학들의 그것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음은 여러 교수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다.

응용미술학과의 표현 방법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에서는 디자인을 설명하는 디자인론이란 이론 과목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디자인론 중에서도 시각 디자인론이 있고 공업 디자인론이 성격을 달리하여 개설되고 있으며 디자인 방법론이 필연성을 갖게 되었다. 입체 조형을 기초로 한 산업 조형이 대두되는가 하면 조형을 바탕으로 한 환경 조형이 도시 디자인, 조경 디자인, 건축 디자인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키면서 함축된 의미를 부각시켜 가고 있다.

공동 관리 평가 교수의 분류 방식은 실용 미술에 관련된 교수들을 통칭하여 응용 미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실용 미술 담당 교수들이라 하여 소묘 채점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평면 구성을 평가함에 있어 동양화나 서양화 전공 교수보다 응용 미술 전공 교수가 더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데서 오는 전문 영역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성에 대한 예리한 감각은 계속 첨예화되면서 학문간의 간극은 극대화될 것이나 전문성의 극대화로 타당성을 상실하는 영역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타협을 배격하고 지고의 순수 예술 가치만을 위한 조각 작품의 창작 세계가 전문성에 있어서는 첨예화된 범주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놓이는 장소성에 대한 문제가 관련되면 여러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창작된 예술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 창작품이 놓여지는 장소에서 창작품에 영향을 미

칠 주위 환경의 시각적 장애 요소들을 모두 거부한다. 그래서 작품이 진열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벽은 무념의 단색이어야 하며 작품의 감상 시계내에는 아무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창작품이 도심의 광장이나 건물 주변 또는 특수한 생활 공간에서 그 본래 기능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지고의 예술성이 보장되는 조각 작품의 영역은 남겨둔 채 환경과의 유기적 관련을 갖고 조화를 위한 타협을 거친 총합 조형적 조형 작품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도시 구조의 심미적 감각인 건축의 구조나 색채, 조경의 형태, 스페이스의 크기, 성격 등 다른 전문 영역의 특성들과 요소들을 종합하여 통합하는 총합 조형의 형태가 오히려 첨예화된 전문성을 제치고 타당도를 갖게 된다. 알렉산더 칼더가 건축의 내부 공간에 매달고 있는 모빌 조각은 바로 총합 조형이며 토탈 아트인 것이다. 이는 조형 감각의 첨예화나 세분화와 복합 상승 요소들을 통합하는 폭 넓은 조형 감각이 다양하게 구사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상호간의 특성들을 수용하면서 주체적 조형 기능을 발휘하는 총합 조형은 60%의 조각적 조형 기능에 40% 정도의 조각 외적 요소를 통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조형이라 생각한다.

총합 조형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 과정도 특별히 짜여져야 하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학과의 개설이 필연적이다.

조형학과나 환경조형학과의 개설이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알기 위해서 선진 외국 유명 대학들의 커리큘럼과 이수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술대학들의 그것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도 제시해 보겠다.

2. 외국의 조형 예술 교육

1) 프랑스 파리 제8대학 조형학부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술대학인 파리 제8대학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과목과 전문 과목으로 양분하고 전체적인 골격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① E.P(조형 표현 계열)
② C.A.C(현대 미술의 이해 계열)
③ H.A.E(미학 및 미술사 계열)

이상의 계열을 자유로이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커리큘럼에서 자신들의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 자격이 주어진다. 다양한 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 예과 : 6학점 E.P에서 취득
3학점 C.A.C에서 취득
3학점 H.A.E에서 취득
학 사 과 정 : 3학점 E.P에서 취득
2학점 C.A.C에서 취득
2학점 H.A.E에서 취득
석 사 과 정 : 1학점 세미나에서 취득
1학점 시험에서 취득
논문 심사
초 급 박 사 : 학점은 없고 세미나와 논문 발표
박 사 : 초급 박사와 동일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얻는 데 시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은 참으로 다양하고 전문성을 계발하는 데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참고로 '84학년도부터 '85학년도의 커리큘럼 명칭을 살펴보면 우리와 비교해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분석적인 주제들을 밀도 있게 수업하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일반 과목〉
- 제스츄어와 예술적 창조(C.A.C)
- 흑백 아뜨리에(판화 과목)(E.P)
- 독일어권내의 국가에 네제된 Romanticism 과 Symbolism(H.A.E)
- 프랑스에서의 아프리카 미술(H.A.E)
- 나체화와 나체 데생(E.P)
- 지각과 창조성(E.P)
- 사회 예술과 실험 교육(E.P)
- 그래피즘 Ⅱ(E.P)
- 세리그래픽 아뜨리에(E.P)
- 데생(E.P)
- 옵셋 인쇄(E.P)
- 야연 판화 아뜨리에(E.P)

〈전문 과목〉

- 인쇄술의 역사적 접근(H. A. E)
- 그래피즘 I (E. P)
- 오브제(E. P)
- 이미지 분석(H. A. E)
- 사회적 발전에 대한 앙케이트(C. A. C)
- 앙케이트 : 일상적인 삶에로의 예술적인 게임 방법과 실행(E. P)
- 조각의 테크닉과 미학(E. P)
- 조각의 연구와 연출(E. P)(환경 실험 조각)
- 건축과 예술 공간(E. P)
- 전위적인 건축의 내재율과 현대 미술과의 상관관계 연구(C. A. C)
- 일반적인 건축과 공간(C. A. C)
- 조형 예술의 실제와 이론의 방법론적 접근(H. A. E)
- 예술 비평 : 앙케이트+이론적인 접근(C. A. C)
- 독제자의 이미지 정책(C. A. C)
- 예술적 시위(C. A. C)
- 이미지의 정후학적인 도입(H. A. E)
- 문화센터 연수(E. P)
- 19~20 세기 여류 작가들의 상황(H. A. E)
- 프랑스 미술사(H. A. E)
- 1945 년부터 오늘날까지 예술의 국제적 흐름(C. A. C)
- 예술과 산업(C. A. C)
- 미술관 조직과 운영(H. A. E)
- 대학교수 자격시험 대비반(E. P)
- 비디오 아트(C. A. C)
- 이코노 그래픽(H. A. E)
- 카피 아트(Copy-Art)(E. P)
- 석사 과정 세미나(H. A. E)
- 이미지와 상상(H. A. E)
- 실질 공간과 정신적인 공간(E. P)
- 제 3 의 물질로서의 빛(H. A. E)
- 아랍예술(H. A. E)
- 비디오 음악(E. P)
- 19 세기와 20 세기 문학에서의 과학과 테크닉 이미지(H. A. E)
- 대 차원의 공간 이미지(E. P)
- 이미지와 사고(H. A. E)

문화의 뿌리가 다르고 사회 환경이 우리와 다르며 문화 유산이나 문화 체험 전통이 다르긴 하지만 참으로 생소한 과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소한 교과 과정이 우리에게 꼭 드시 맞는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미술대학 커리큘럼들이 반드시 타당하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폭넓은 조형 능력을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는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의 미술대학 교과 과정과 몇 과목이나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영국의 **R. C. A**(Royal College of Art)

영국의 대표적인 미술대학을 들라 하면 R. C. A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대학이 대학과 대학원의 2 원제임에 비하여 R. C. A는 기초 과정(foundation course), 전공 과정(undergraduate course), 특수 전공 과정(postgraduate course)의 세 과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학위도 자격 과정(diploma course)과 학위 과정(degree course)으로 2 원화되어 있고, 다시 학위 과정은 이론 중심의 학술 연구 과정(academic degree course)과 실기 중심의 창작 연구 과정(professional degree course)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R. C. A는 교육 체계의 조직에서 5 개의 학부(faculty)에 1 개의 연구실(research and development)이 횡적으로 연관되어 폭 넓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그 안에는 26 개 이상의 전공을 개설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꼽아 본다면 첫째로 회화, 조각, 환경 매체 학부(faculty of painting, sculpture and environmental media)로 환경 미술을 독립적인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는 이론 학부(faculty of theoretical studies)가 별도로 있어 미술 이론의 전문인을 길러 낸다는 점이다.

이 대학의 기구 조직은 비교적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기초 과정에서 모든 학부에 공통된 이론과 실기 교육이 진행되어 종합적인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런 밑거름이 종합 조형의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

로 다져지는 것이다.

3) 일본의 쓰꾸바대학 예술전문학군

일본의 첨단적인 연구 단체가 즐비한 곳에 있는 쓰꾸바(筑波)대학은 미술대학이란 명칭 대신에 예술전문학군이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학과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군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한 학군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나 단과 대학에 해당된다. 학군 단위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1,2 학년까지 기초 과목과 공통 과목을 이수시키고 전공을 분류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속에서도 기본적인 종합 능력의 바탕이 다져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계열별 선발 방식을 후퇴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계열별 선발 방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알다시피 인기 전공 쪽으로만 몰려 전공간에 적정 인원의 배분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쓰꾸바대학의 기초 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학, 예술학 개론
- 서양 미술사 개설
- 일본 미술사 개설
- 디자인사 개설
- 조형론 A
- 조형론 B
- 조형 기초 연습 A
- 조형 기초 연습 B
- 조형 기초 연습 C

이상의 기초 과정을 거친 후 예술학, 미술(회화, 조소, 서예), 구성, 디자인(시각 전달 디자인, 생산 디자인, 환경 디자인, 건축 디자인) 등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학 예술전문학군의 운영 방식 중 우리나라 미술대학 교육 과정과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본다.

첫째, 우리나라처럼 입학 당시부터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으로 선발하지 않고 기초 과정에서 자신에 알맞은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커리큘럼이 우리보다는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해마다 새로운 교과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사회적 변화와 미술 감각이 계속 바뀌고 있는 현실에 적응 능력을 갖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이외에도 관련 과목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어 전인적이고 폭 넓은 사고와 조형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조형의 종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째, 조형 및 환경 조형, 환경 예술에 관한 관심과 아울러 종합조형학과가 개설되어 환경 개선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3. 환경 조형과 조형학과

응용 미술 즉 실용 미술이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실용 미술은 일반 사회의 문화 감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품 개발로 직결되고 있는 공업 디자인 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바늘에서 비행기까지 실용 기능을 기본 바탕으로 아름다운 외형이 구매 충동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바로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 미술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화에 대처하는 교육 과정의 변화가 신축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대 도시 환경의 생활 공간에서 필요한 조각 작품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타협을 전제로 한다. 타협적 조형 능력을 개발한 조형학과나 환경조형학과가 시급히 개설되어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순수 미술인 조각도 적응 영역을 넓히기 위해 환경과 타협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야 하는 것이다. ※